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34 주차 (14:18~14:31)

(2015년 9월 13일 - 2015년 9월 19일)

(제3권 34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34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9 월 13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것 (주일)

오늘의 본문 (요 14:18~24)

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20.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2.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24.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원문해석하기

-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방치하지 않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Οὐκ ἀφήσω ὑμᾶς ὀρφανούς, ἔρχομαι πρὸς ὑμᾶς.)
- (19절) 아직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있다] (ἔτι μικρὸν)
그리고 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καὶ ὁ κόσμος με οὐκέτι θεωρεῖ)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볼 것이다 (ὕμεῖς δὲ θεωρεῖτέ με,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았고 너희들도 살겠음이라 (ὅτι ἐγὼ ζῶ καὶ ὑμεῖς ζήσετε.)
- (20절) 그 날에는 (ἐν ἐκείνῃ τῇ ἡμέρᾳ)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γνώσεσθε ὑμεῖς)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ὅτι ἐγὼ ἐν τῷ πατρὶ μου καὶ ὑμεῖς ἐν ἐμοὶ καὶ ἐγὼ ἐν ὑμῖν.)
-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ὁ ἔχων τὰς ἐντολάς μου καὶ τηρῶν αὐτάς ἐκεῖνός ἐστιν ὁ ἀγαπῶν με·)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 받게 될 것이다
(ὁ δὲ ἀγαπῶν με ἀγαπηθήσεται ὑπὸ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할 것이고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καὶ ἐγὼ ἀγαπήσω αὐτὸν καὶ ἐφανέρωσω αὐτῷ ἐμαυτόν.)
- (22절) 가룟인 아닌 유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Ἰούδας, οὐχ ὁ Ἰσκαριώτης·)
주여, 왜 우리에게는 나타내려 하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κύριε, [καὶ] τί γέγονεν ὅτι ἡμῖν μέλλεις ἐφανερῖζειν σεαυτὸν καὶ οὐχὶ τῷ κόσμῳ;)
- (23절) 예수님이 대답하시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만일 어떤 이가 나를 사랑한다면 (ἐάν τις ἀγαπᾷ με)
 나의 말을 지키게 될 것이다 (τὸν λόγον μου τηρήσει)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할 것이다 (καὶ ὁ πατήρ μου ἀγαπήσει αὐτὸν)
 그리고 내가 그에게로 올 것이다 (καὶ πρὸς αὐτὸν ἔλευσόμεθα)
 그리고 그와함께 거처를 만들 것이다 (καὶ μονὴν παρ' αὐτῷ ποιησόμεθα.)

(24절) 나의 말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키고 있지 않다
 (ὁ μὴ ἀγαπῶν με τοὺς λόγους μου οὐ τηρεῖ·)
 그리고 너희가 듣고 있는 그 말은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다
 (καὶ ὁ λόγος ὃν ἀκούετε οὐκ ἔστιν ἐμὸς ἀλλὰ τοῦ πέμψαντός με πατρό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8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아와 같이 방치해 두지 않고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약속 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방치해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아란 부모를 잃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아직도 부모가 살아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떠나시면 다시 3년전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고 살던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게 되자 이들은 갈릴리로 돌아가 예전처럼 고기를 잡으며 살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고아’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여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 이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공동체는 이 세상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른 영적 공동체이고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이 영적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몸소 보여 주신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고아처럼 아무런 대책없이 이 땅에 남겨지는 느낌이었을 테니까요. 이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데 것이 아니고 늘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팍팍한 현실에 헉헉대며 살아가고 있고, 아무도 자신과 함께 해주지 않는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긴 하지만 때로는 그 사실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원망이 들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나의 상황이나 생각과는 무관하게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단 한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고아와 같지 않은 것이지요. 당신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시나요? 왜 그런 느낌이 드시는지 그 원인을 생각해 보시고 간단하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19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아직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있고 이 세상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이 지금 살았고 제자들도 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약간의 시간이란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순식간에 사라질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곧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 대제사장들이 보낸 로마 군대에 의해 체포될 것이고 그 이후 온갖 수모를 당하신 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잠시 동안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까지 이들에게 고별사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더 이상 자기를 볼 수 없을 것이지만 제자들은 자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예수님이 지금 살았고 제자들도 살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는 ‘데이레오’(θεωρέω)인데 이는 시각적으로 사물을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더 이상 시각적으로 볼 수 없었지만 제자들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그 동안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그 길이 보이고, 그 진리를 올바르게 알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그 길이 보이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 7:13-14).

여기서 좁은 문은 예수님입니다. 그가 길이요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찾는 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유리스코’(εὕρισκω)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발견하다’입니다. 어렸을 때 소풍가서 보물찾기 놀이를 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숨겨놓은 종이 쪽지를 찾아내는 놀이죠. 숨겨진 종이 쪽지는 어떤 이의 눈에는 보이지만 어떤 이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보물 찾기를 할 때의 그 종이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먼저 발견하면 되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길과 예수님이라는 진리는 예수님이 생명을 준 사람만이 발견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그 예수님을 발견하셨나요? 그를 길이요 진리로 깨달으셨나요? 각자 그 길을 발견하고 그 진리를 올바르게 알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고 그때의 감정을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20 절을 읽으십시오. 그 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신비의 연합이라는 개념으로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19 절에 이어 20 절을 읽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곳은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에 대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⁸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⁹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 3:7-9).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쌓아왔던 자신의 의를 벗어버릴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를 입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하던 그 의로운 삶이 그저 더러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자신의 노력이 참으로 부끄러운 행동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신이 별거벗은 것을 알고 예수님 안으로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월요일)

오늘의 본문 (요 14:18~24)

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20.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2.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24.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원문해석하기

-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방치하지 않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Οὐκ ἀφήσω ὑμᾶς ὀρφανούς, ἔρχομαι πρὸς ὑμᾶς.)
- (19절) 아직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있다] (ἔτι μικρὸν)
그리고 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καὶ ὁ κόσμος με οὐκέτι θεωρεῖ)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볼 것이다 (ὕμεῖς δὲ θεωρεῖτέ με,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았고 너희들도 살겠음이라 (ὅτι ἐγὼ ζῶ καὶ ὑμεῖς ζήσετε.)
- (20절) 그 날에는 (ἐν ἐκείνῃ τῇ ἡμέρᾳ)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γνώσεσθε ὑμεῖς)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ὅτι ἐγὼ ἐν τῷ πατρὶ μου καὶ ὑμεῖς ἐν ἐμοὶ καὶ ἐν ὑμῖν.)
-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ὁ ἔχων τὰς ἐντολάς μου καὶ τηρῶν αὐτάς ἐκεῖνός ἐστιν ὁ ἀγαπῶν με·)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 받게 될 것이다
(ὁ δὲ ἀγαπῶν με ἀγαπηθήσεται ὑπὸ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할 것이고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καὶ ἐγὼ ἀγαπήσω αὐτὸν καὶ ἐφανέρωσω αὐτῷ ἐμαυτόν.)
- (22절) 가룟이 아닌 유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Ἰούδας, οὐχ ὁ Ἰσκαριώτης·)
주여, 왜 우리에게는 나타내려 하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κύριε, [καὶ] τί γέγονεν ὅτι ἡμῖν μέλλεις ἐφανερῶσαι σεαυτὸν καὶ οὐχὶ τῷ κόσμῳ;)
- (23절) 예수님이 대답하시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만일 어떤 이가 나를 사랑한다면 (ἐάν τις ἀγαπᾷ με)
 나의 말을 지키게 될 것이다 (τὸν λόγον μου τηρήσει)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할 것이다 (καὶ ὁ πατήρ μου ἀγαπήσει αὐτὸν)
 그리고 내가 그에게로 올 것이다 (καὶ πρὸς αὐτὸν ἔλευσόμεθα)
 그리고 그와함께 거처를 만들 것이다 (καὶ μονὴν παρ' αὐτῷ ποιησόμεθα.)
 (24절) 나의 말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키고 있지 않다
 (ὁ μὴ ἀγαπῶν με τοὺς λόγους μου οὐ τηρεῖ·)
 그리고 너희가 듣고 있는 그 말은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다
 (καὶ ὁ λόγος ὃν ἀκούετε οὐκ ἔστιν ἐμὸς ἀλλὰ τοῦ πέμψαντός με πατρό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1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며, 예수님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자기를 그에게 드러내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드러나 밝히 보여지는 것, 예수님을 진리로 길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어 알려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인간들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애를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 21 절을 읽으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마치 인간이 어떤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대상은 반드시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내는 자라야만 한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성경 원문을 자세히 읽어 보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냄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해 내야만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며, 그런 자에게만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겠다고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은 제자들 또는 믿는 자들의 실존에 관한 것이고 둘째 부분은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들에게 베푸실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첫 부분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렇게 되라는 명령이 아니라 제자들의 현재 상태가 이미 그렇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가졌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양치가 양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양떼를 떠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은혜입니다. 이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스스로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자격없는 자이기엔 어떻게든 자신의 노력으로 조금이라도 이를 만회해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자신이 계명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충분하다는 걸 입증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내고자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보잘 것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꼭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은혜를 온전히 따르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율법으로 회귀하는 것이 쉬울까요? 언뜻 보기엔 전자가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후자가 훨씬 쉽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늘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법은 늘 나를 돌아보고 정죄하게 만들

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내 그 율법의 요구를 따라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이루어내고자 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 합니다. 인간들은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적 욕망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그런 존재이기에 율법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덥석 따 먹으려 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꾸미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율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용서, 그 은혜에 머물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서 사랑이 솟아나와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가진 자,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바로 그 사람(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자)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님은 그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할 것이고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제자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조만간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켰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율법을 잘 지켜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는 모두가 다 도망쳐 버린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그리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는 자기들에게 그 화가 미칠까 두려워 다락방에 숨은 채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나중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 절~15 절을 보겠습니다.

“⁴³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⁴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⁴⁵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 후 5:13-15).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말은 강하게 붙잡아 나를 움싸달락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닌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인다는 말이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려면 바로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하는 것이며,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 먹었지만 자기

안에서 불일듯 일어나는 진리의 힘에 의해 다시 백성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자기 입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는 백성들로 인해 너무나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시이기였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⁸ 대저 내가 말할때 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⁹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렘 20:7-9).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그저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때론 인간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은 율법주의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주의는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을 유혹하여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계명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그 은혜 아래 있나요?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누가 세상인가? (화요일)

오늘의 본문 (요 14:18~24)

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20.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2.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24.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원문해석하기

-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방치하지 않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Οὐκ ἀφήσω ὑμᾶς ὀρφανούς, ἔρχομαι πρὸς ὑμᾶς.)
- (19절) 아직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있다] (ἔτι μικρὸν)
그리고 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καὶ ὁ κόσμος με οὐκέτι θεωρεῖ)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볼 것이다 (ὕμεις δὲ θεωρεῖτέ με,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았고 너희들도 살겠음이라 (ὅτι ἐγὼ ζῶ καὶ ὑμεῖς ζήσετε.)
- (20절) 그 날에는 (ἐν ἐκείνῃ τῇ ἡμέρᾳ)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γνώσεσθε ὑμεῖς)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ὅτι ἐγὼ ἐν τῷ πατρὶ μου καὶ ὑμεῖς ἐν ἐμοὶ καὶ ἐγὼ ἐν ὑμῖν.)
-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ὁ ἔχων τὰς ἐντολάς μου καὶ τηρῶν αὐτάς ἐκεῖνός ἐστιν ὁ ἀγαπῶν με·)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 받게 될 것이다
(ὁ δὲ ἀγαπῶν με ἀγαπηθήσεται ὑπὸ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할 것이고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καὶ ἐγὼ ἀγαπήσω αὐτὸν καὶ ἐφανέρωσω αὐτῷ ἐμαυτόν.)
- (22절) 가룟인 아닌 유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Ἰούδας, οὐχ ὁ Ἰσκαριώτης·)
주여, 왜 우리에게는 나타내려 하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κύριε, [καὶ] τί γέγονεν ὅτι ἡμῖν μέλλεις ἐφανέριζεν σεαυτὸν καὶ οὐχὶ τῷ κόσμῳ;)
- (23절) 예수님이 대답하시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만일 어떤 이가 나를 사랑한다면 (ἐάν τις ἀγαπᾷ με)
 나의 말을 지키게 될 것이다 (τὸν λόγον μου τηρήσει)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할 것이다 (καὶ ὁ πατήρ μου ἀγαπήσει αὐτὸν)
 그리고 내가 그에게로 올 것이다 (καὶ πρὸς αὐτὸν ἐλευσόμεθα)
 그리고 그와 함께 거처를 만들 것이다 (καὶ μονήν παρ' αὐτῷ ποιησόμεθα.)
 (24절) 나의 말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키고 있지 않다
 (ὁ μὴ ἀγαπῶν με τοὺς λόγους μου οὐ τηρεῖ·)
 그리고 너희가 듣고 있는 그 말은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다
 (καὶ ὁ λόγος ὃν ἀκούετε οὐκ ἔστιν ἐμὸς ἀλλὰ τοῦ πέμψαντός με πατρό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2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은 이 제자가 가롯유다와 동명이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주여! 왜 우리에게는 나타내려 하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사실 이런 말씀을 들은 자라면 누구라도 유다와 같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 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 있지요 (요 3:16 참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상을 완전히 배제하고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겠다고 하니 궁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이 질문은 그런 단순한 뜻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은 문학적으로 유다의 문제 제기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더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3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유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만일 어떤 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말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나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그에게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거처를 만들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직전 가르침의 반복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사실상 동일한 말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질문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23 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의 조건절과 네 개의 주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조건이 만족되면 뒤에 오는 모든 말씀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조건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만일 어떤 이가 나를 사랑한다면”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니 예수님만 사랑하면 되겠네!”

이런 반응은 참으로 어린 아이같이 순진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쓰인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아무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나 있는 것일까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다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 번에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나눴던 대화를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 장 15 절~17 절 내용입니다.

“¹⁵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¹⁶ 또 두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¹⁷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요 21:15-17).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 번에 걸쳐 확인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해석은 아닌 듯합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을 헬라어로 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알 수 없는 미묘한 단어 사용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 절) 예수님: “ἀγαπᾷς με πλεον τούτων” (아가파스 메 프레온 투우톤?)

베드로: “κύριε, σὺ οἶδας ὅτι φιλῶ σε” (큐리에, 수 오이다스 호티 필로 세)

예수님: “βόσκει τὰ ἀρνία μου” (보스케 타 아르니아 모우)

(16 절) 예수님: “ἀγαπᾷς με;” (아가파스 메?)

베드로: “ναὶ κύριε, σὺ οἶδας ὅτι φιλῶ σε” (나이 큐리에, 수 오이다스 호티 필로 세)

예수님: “ποίμαινε τὰ πρόβατά μου” (포이마이네 타 프로바타 모우)

(17 절) 예수님: “φιλεῖς με;” (필레이스 메?)

베드로: “κύριε, πάντα σὺ οἶδας, σὺ γινώσκεις ὅτι φιλῶ σε”

(큐리에 판타 수 오이다스 수 기노스케이시 호티 필로 세)

예수님: “βόσκει τὰ πρόβατά μου.” (보스케 타 프로바타 모우)

맞출 친 단어를 유의해서 보십시오. 단어 사용의 미묘한 변화를 발견하셨나요? 먼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아가파오’로 시작합니다. 연거푸 두 번에 걸쳐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예수님은 질문을 필레오로 바꾸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여기에 쓰인 ‘필레오’라는 단어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친구 사이의 사랑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의 사랑 말이지요. 그러나 ‘아가페’는 내리 사랑이자 한쪽의 전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한 무조건적 사랑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 아가파오라고 말씀 하시다가 베드로가 계속해서 필레오라고 대답 하자 세 번째는 필레오로 질문하십니다. 베드로가 말귀를 못알아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아가파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23절로 돌아가 봅시다. 그렇다면 여기에 쓰인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아가파오한다면’이라는 가정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아가파오의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아가페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랑의 원동력이 우리 자신의 능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가페오가 가능해 지는 거지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또 하나 발견되는 미묘한 단어 변화는 바로 양과 관련된 것입니다. 15절에서 “내양을 먹이라”라는 명령문에서 쓰인 양과 그 뒤에 쓰인 양이 다른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에 해당하는 단어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에 쓰인 ‘프로바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명령에서 예수님은 이 ‘프로바톤’ 대신에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둘 모두 양을 의미하는 것이긴 하나 성경에서 이들은 전혀 다르게 쓰입니다. 아르니온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 요한만 사용한 단어인데 신약에서 총 30회가 사용되었습니다. 요한 복음에 21장 15절에 단 한번,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 29번 쓰였는데 요한 계시록에서는 모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요한 복음에는 양이라는 단어가 22번 나오는데 그 중에 19번이 프로바톤이고 ‘아르니온’은 단 한번 쓰였으며,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 ‘암노스’가 두 번 쓰였습니다. 성경에 쓰인 이들의 용례를 살펴보면, ‘암노스’는 고난 당하는 희생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아르니온’은 희생당하고 승리한 양이라는 의미로 쓰였으며, ‘프로바톤’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는 의미로 각각 달리 사용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용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처음에는 희생당하고 승리한 어린 양(여기서는 복수이므로 희생당한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은유적인 의미에서 일반 성도들을 먹이라고 말을 바꾸신 셈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요한 복음 21장을 하면서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사랑(아가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저 친구처럼 예수님과 교제(필레오)를 나눌 수 있는 정도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단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으로 강권적으로 들어오시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수요일)

오늘의 본문 (요14:25~31)

25.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8.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29.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30.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31.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25절)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무는 동안 이것을 말해왔다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παρ' ὑμῖν μένων·)
- (26절) 옹호자,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분
(ὁ δὲ παράκλητος,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ὃ πέμψει ὁ πατήρ ἐν τῷ ὀνόματί μου.)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ἐκεῖνος ὑμᾶς διδάξει πάντα.)
그리고 그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καὶ ὑπομνήσει ὑμᾶς πάντα ἃ εἶπον ὑμῖν [ἐγώ].)
- (27절)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허락하노라 (Εἰρήνην ἀφήμι ὑμῖν·)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εἰρήνην τὴν ἐμὴν δίδωμι ὑμῖν·)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과 같지 않다 (οὐ καθὼς ὁ κόσμος δίδωσιν ἐγὼ δίδωμι ὑμῖν·)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μὴ ταρασσέσθω ὑμῶν ἡ καρδία μηδὲ δειλιάτω.)
- (28절)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ἠκούσατε ὅτι ἐγὼ εἶπον ὑμῖν·)
내가 떠나가고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ὑπάγω καὶ ἔρχομαι πρὸς ὑμᾶς·)
만약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εἰ ἠγαπήτε με)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ἐχάρητε ἂν ὅτι πορεύομαι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보다 위대하심이니라 (ὅτι ὁ πατήρ μείζων μου ἐστίν·)
- (29절)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καὶ νῦν εἶρηκα ὑμῖν πρὶν γενέσθαι·)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 (ἵνα ὅταν γένηται πιστεύσητε.)
- (30절) 이후에 더 이상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못할 것이다 (οὐκέτι πολλὰ λαλήσω μεθ' ὑμῶν·)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배자가 올 것이다 (ἔρχεται γὰρ ὁ τοῦ κόσμου ἄρχων·)
그리고 내 안에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καὶ ἐν ἐμοὶ οὐκ ἔχει οὐδέν·)

(31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을 이 세상이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
 (ἀλλ' ἵνα γινῶ ὁ κόσμος ὅτι ἀγαπῶ τὸν πατέρα,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명하신 것과 같이 (καὶ καθὼς ἐνετείλατό μοι ὁ πατήρ.)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οὕτως ποιῶ.)
 일어나라 우리 여기서 떠나자 (ἐγείρεσθε, ἄγωμεν ἐνταῦθε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5~26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무는 동안 이것을 말해 왔다. 옹호자,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분,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계속 말해왔다는 것일까요? 말씀 그대로 보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말합니다. 즉, “옹호자,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분,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계속 해오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옹호자(보혜사), 거룩한 영,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분으로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옹호자로 번역한 ‘파라클레토스’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제 아무리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 다닌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에 이르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며 이적을 보고 환호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당시에 그러한 초월적 능력을 지니고 계시며 놀라운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고 그를 랍비로 여기며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말을 듣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동안 가르쳐 왔던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야만 비로소 그 참된 의미를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복음서 저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과 12장을 차례로 찾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¹³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¹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¹⁵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엮으시고 ¹⁶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¹⁷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¹⁸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¹⁹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²⁰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사십 육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²¹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²²죽은 자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요 2:13-22).

“⁴²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⁴³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⁴⁴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⁴⁵이는 기록된바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⁴⁶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요 12:12-16).

위 두 말씀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행하실 당시에는 왜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하는지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그 행하신 일과 가르침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정작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이나 말씀의 의미도 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나시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그 비밀을 알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성령님을 보내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성령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삶을 통해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진리의 의미를 정확히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는 말을 들을 때면 흔히들 초월적 능력으로 인간들을 사로 잡는 어떤 신비한 현상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한 현상들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의 극히 일부분이며 많은 경우 그런 신비 체험은 성령과는 무관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 그 자체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이끄셔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내려 놓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상적인 것에 관여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분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성령이 이끄시는 삶인 것이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며 매일매일의 삶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일은 성령님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과 성경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절대로 사탄의 인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건드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에 처하여 힘들어 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못살게 굴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개의 경우 고난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현실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 현실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나 욕망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분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그 뜻은 언제나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망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 5:24)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시는 일은 바로 삶 속에서 충족되지 않는 욕망, 자신이 무언가 성취해 내어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그 열정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허상임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지요. 이는 세상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에게 더 많은 고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세상적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꿔 가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은 반드시 세상적 가치관과는 대립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관점으로 성령님을 대하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훈련을 하다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에이레네 (εἰρήνη)(목요일)

오늘의 본문 (요14:25~31)

25.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8.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29.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30.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31.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25절)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무는 동안 이것을 말해왔다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παρ' ὑμῖν μένων·)
- (26절) 옹호자,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분
(ὁ δὲ παράκλητος,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ὃ πέμψει ὁ πατήρ ἐν τῷ ὀνόματί μου.)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ἐκεῖνος ὑμῶς διδάξει πάντα.)
그리고 그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καὶ ὑπομνήσει ὑμῶς πάντα ἃ εἶπον ὑμῖν [ἐγώ].)
- (27절)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허락하노라 (Εἰρήνην ἀφήμι ὑμῖν·)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εἰρήνην τὴν ἐμὴν δίδωμι ὑμῖν·)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과 같지 않다 (οὐ καθὼς ὁ κόσμος δίδωσιν ἐγὼ δίδωμι ὑμῖν·)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μὴ ταρασσέσθω ὑμῶν ἡ καρδία μηδὲ δειλιάτω.)
- (28절)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ἠκούσατε ὅτι ἐγὼ εἶπον ὑμῖν·)
내가 떠나가고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ὑπάγω καὶ ἔρχομαι πρὸς ὑμῶς·)
만약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εἰ ἠγαπήτε με)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ἐχάρητε ἂν ὅτι πορεύομαι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보다 위대하심이니라 (ὅτι ὁ πατήρ μείζων μου ἐστίν·)
- (29절)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καὶ νῦν εἶρηκα ὑμῖν πρὶν γενέσθαι·)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 (ἵνα ὅταν γένηται πιστεύσητε.)
- (30절) 이후에 더 이상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못할 것이다 (οὐκέτι πολλὰ λαλήσω μεθ' ὑμῶν·)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배자가 올 것이다 (ἔρχεται γὰρ ὁ τοῦ κόσμου ἄρχων·)
그리고 내 안에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καὶ ἐν ἐμοὶ οὐκ ἔχει οὐδέν·)

(31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을 이 세상이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
 (ἀλλ' ἵνα γινῶ ὁ κόσμος ὅτι ἀγαπῶ τὸν πατέρα,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명하신 것과 같이 (καὶ καθὼς ἐνετείλατό μοι ὁ πατήρ,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οὕτως ποιῶ.)
 일어나라 우리 여기서 떠나자 (ἐγείρεσθε, ἄγομεν ἐνταῦθε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7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영문을 몰라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허락하노라.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3년을 넘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무척이나 당화하고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이 오지 못할 그곳으로 가신다는 말씀에 그들의 마음은 너무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앞날은 매우 불투명했으며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동안 그들이 가졌던 자부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성경을 그렇게 해박하고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으며 어느 누가 병자들을 그렇게 고치실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어느 누가 파도와 바람에게 명령을 내려 잠잠케 할 수 있으며 어느 누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돌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의로운 자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폭로 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나무라셨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놀라면서도 쾌감을 느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따라다니는 예수님과 자신들을 일체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런 분의 제자라는 자부심에 늘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을 떠날 것이라고 하니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이지요. 그것은 자신들의 정체성 자체에 문제를 야기하는 매우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라면 지난 3년간의 제자들의 삶은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들은 다시 3년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체면도 말이 아니지만 도대체 자신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감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앞날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내내 불안해 하며 살았다는 사실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허락하노라.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과 같이 않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평강에 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 평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서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8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취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눅2:8-14).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지금 제자들이 처한 분위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어두운 밤에 외롭게 양떼를 지키며 소망없이 앉아 있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하늘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평화’(에이레네(εἰρήνη))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란 이 땅에 전쟁이 없어지고 사람들간에 화평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던 죄로 인한 긴장 관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사라지고 한없는 용서와 사랑의 관계로 바뀐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이레네’(εἰρήνη)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선언이고 그 선언이야말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이 어그러져서 고난이 올 때에도 자신이 죄를 범해서 그 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다는 인과응보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서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롬 5:1-2).

Δικαιοθέντες οὖν ἐκ πίστεως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εἰρήνην ἔχομεν πρὸς τὸν θεόν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평강을 가지고 있다)
 διὰ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δι' οὗ (그를 통하여)
 καὶ τὴν προσαγωγὴν ἐσχίκαμεν [τῇ πίστει] εἰς τὴν χάριν ταύτην (믿음으로 그 은혜로 나감을 가지고 있으며)
 ἐν ᾗ (그것 안에)
 ἐστήκαμεν (우리는 서 있다)
 καὶ καυχόμεθα ἐπ' ἐλπίδι τῆς δόξης τοῦ θεοῦ. (하나님 영광의 소망위에 우리는 즐거워한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평강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을 향한 평강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했던 진노를 거두어 들이고 일방적으로 평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살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에이레네, 살롬은 그냥 공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던 그 진노의 잔이 예수님께 대신 퍼부어진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에이레네’(εἰρήνη)를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약속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지요.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¹⁹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²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옥체니라 ²¹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²²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히10:19-22).

이것이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에이레네’(εἰρήνη)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샬롬이 선포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암과 같은 중병에 걸려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 할 수도 있지요. 세상에서의 어려움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영혼을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 불안감, 죄책감, 수치심,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악화된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샬롬을 허락하셨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흔드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없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금요일)

오늘의 본문 (요14:25~31)

25.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8.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29.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30.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31.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25절)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무는 동안 이것을 말해왔다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παρ' ὑμῖν μένων·)
- (26절) 옹호자,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분
(ὁ δὲ παράκλητος,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ὃ πέμψει ὁ πατήρ ἐν τῷ ὀνόματί μου.)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ἐκεῖνος ὑμῶς διδάξει πάντα.)
그리고 그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καὶ ὑπομνήσει ὑμῶς πάντα ἃ εἶπον ὑμῖν [ἐγώ].)
- (27절)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허락하노라 (Εἰρήνην ἀφήμι ὑμῖν·)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εἰρήνην τὴν ἐμὴν δίδωμι ὑμῖν·)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과 같지 않다 (οὐ καθὼς ὁ κόσμος δίδωσιν ἐγὼ δίδωμι ὑμῖν·)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μὴ ταρασσέσθω ὑμῶν ἡ καρδία μηδὲ δειλιάτω.)
- (28절)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ἠκούσατε ὅτι ἐγὼ εἶπον ὑμῖν·)
내가 떠나가고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ὑπάγω καὶ ἔρχομαι πρὸς ὑμῶς·)
만약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εἰ ἠγαπήτε με)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ἐχάρητε ἂν ὅτι πορεύομαι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보다 위대하심이니라 (ὅτι ὁ πατήρ μείζων μου ἐστίν·)
- (29절)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καὶ νῦν εἶρηκα ὑμῖν πρὶν γενέσθαι·)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 (ἵνα ὅταν γένηται πιστεύσητε.)
- (30절) 이후에 더 이상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못할 것이다 (οὐκέτι πολλὰ λαλήσω μεθ' ὑμῶν·)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배자가 올 것이다 (ἔρχεται γὰρ ὁ τοῦ κόσμου ἄρχων·)
그리고 내 안에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καὶ ἐν ἐμοὶ οὐκ ἔχει οὐδέν·)

(31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을 이 세상이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
 (ἀλλ' ἵνα γινῶ ὁ κόσμος ὅτι ἀγαπῶ τὸν πατέρα,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명하신 것과 같이 (καὶ καθὼς ἐνετείλατό μοι ὁ πατήρ,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οὕτως ποιῶ).
 일어나라 우리 여기서 떠나자 (ἐγείρεσθε, ἄγωμεν ἐνταῦθε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8절을 읽으십시오. 이제 예수님의 고별사 중 첫 번째 부분이 마무리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고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육신은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고 그 대신 그리스도의 영을 제자들에게 보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며 간절히 주의 재림을 원했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재림에 관한 말씀이기보다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보다 위대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하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버지께로 가도록 놓아 주어야 한다거나 조금은 신과적으로 해석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 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매우 역설적인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드는 의문은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간다는 사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뻐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으며,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정법을 사용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 말에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니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제자들이 과연 기뻐할만한 일인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기뻐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라고 했으니 기뻐해야지!’라며 막무가내로 기쁨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건전한 신앙을 해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도 못되고 더군다나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기쁘기는커녕 오히려 슬퍼하고 힘들어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믿는 사람들의 구원의 완성과 영원한 보장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 완성된 구원은 우리들에게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분의 보혜사가 필요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믿는 우리들 안에 내주하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영원한 평화의 관계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이 우리에게겐 기쁜 일이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구절에서 또 하나 드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시기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게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무언가를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마치 제자들에게 자기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설령, 강요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그대로 따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방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속하시는 그 사역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 당하고 죽으시는 것과 삼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의문을 제기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으니 이제는 맘 편히 그냥 우리를 위해 살면 되겠네?”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내고 의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이지 전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렇듯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실존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후 4:7).

결국 구원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슴 아프고 면목 없지만 그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수난 당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 의를 성취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아등바등 율법을 지키며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해 내려고 애를 쓰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뭔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되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대는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되고, 행여라도 자기 눈에 다른 이의 허물이 보이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그러이 덮어주기보다는 정죄의 칼날을 드리웁니다. 그것이 공의인양 착각하면서 말이지요.

겉으로 보기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이 100%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염치 없지만 묵묵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고

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너무도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지요. 누가복음은 그런 세리의 모습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⁹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¹⁰두 사람이 기도 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¹¹"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¹²나는 이레에 두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¹³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¹⁴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 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눅 18:9-14).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내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의 신앙을 돌아보아 바리새인과 같은 면이 없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고, 언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수난을 예고하시다 (토요일)

오늘의 본문 (요14:25~31)

25.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8.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29.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30.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31.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25절)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무는 동안 이것을 말해왔다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παρ' ὑμῖν μένων·)
- (26절) 옹호자,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분
(ὁ δὲ παράκλητος,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ὃ πέμψει ὁ πατήρ ἐν τῷ ὀνόματί μου.)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ἐκεῖνος ὑμᾶς διδάξει πάντα.)
그리고 그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καὶ ὑπομνήσει ὑμᾶς πάντα ἃ εἶπον ὑμῖν [ἐγώ].)
- (27절)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허락하노라 (Εἰρήνην ἀφήμι ὑμῖν·)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εἰρήνην τὴν ἐμὴν δίδωμι ὑμῖν·)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과 같지 않다 (οὐ καθὼς ὁ κόσμος δίδωσιν ἐγὼ δίδωμι ὑμῖν·)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μὴ ταρασσέσθω ὑμῶν ἡ καρδία μηδὲ δειλιάτω.)
- (28절)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ἠκούσατε ὅτι ἐγὼ εἶπον ὑμῖν·)
내가 떠나가고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ὑπάγω καὶ ἔρχομαι πρὸς ὑμᾶς.)
만약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εἰ ἠγαπήτε με)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ἐχάρητε ἂν ὅτι πορεύομαι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보다 위대하심이니라 (ὅτι ὁ πατήρ μείζων μου ἐστίν·)
- (29절)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καὶ νῦν εἶρηκα ὑμῖν πρὶν γενέσθαι·)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 (ἵνα ὅταν γένηται πιστεύσητε.)
- (30절) 이후에 더 이상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못할 것이다 (οὐκέτι πολλὰ λαλήσω μεθ' ὑμῶν·)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배자가 올 것이다 (ἔρχεται γὰρ ὁ τοῦ κόσμου ἄρχων·)
그리고 내 안에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καὶ ἐν ἐμοὶ οὐκ ἔχει οὐδέν·)

(31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을 이 세상이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
 (ἀλλ' ἵνα γινῶ ὁ κόσμος ὅτι ἀγαπῶ τὸν πατέρα,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명하신 것과 같이 (καὶ καθὼς ἐνετείλατό μοι ὁ πατήρ,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οὕτως ποιῶ).
 일어나라 우리 여기서 떠나자 (ἐγείρεσθε, ἄγομεν ἐνταῦθε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9-31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첫 번째 고별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별사를 마치시고는 자리를 옮기십니다(요14:31절 참조).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 가시는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 3년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했던 예수 공동체는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엇보다 그 때문에 매우 근심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버리고) 어딘가로 가 버리신다면 자신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따르면 그들은 결국 3년 전 떠나왔던 삶의 현장인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뿔뿔히 흩어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으며, 성령님이 그들을 찾아 오셔서 교회가 시작될 것이지요. 지금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예수 공동체에 닥칠 위기는 엄청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인류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크고 안전한 곳을 선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보다는 귀에 듣기에 편안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만 듣고자 하는 분들이 많고,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도 사람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당장 내 눈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직시할 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 찾아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30-31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이 헤어질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후에 더 이상 너희와 말을 많이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 지배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안에 그가 가진 것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가 오는 이유는] 아버지가 나에게 명하신 것 같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이 알도록 하기 위해 [이 세상의 지배자가 올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상의 지배자가 예수님을 찾아올 것인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혐의점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오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명령한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고 있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올 것이라는 뜻

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세상 지배자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가야바를 위시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당시 정치적으로 이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인 빌라도를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통칭하여 단수로 ‘이 세상의 지배자’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혐의점을 찾아냈기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밤새도록 심문한 빌라도는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의 무고함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²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³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찌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⁴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⁵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⁶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요 19: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 지배자들의 손을 통해 죽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로마 군대는 대제사장들의 결정을 실행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물을 죽여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림자로 주신 그 제사 제도를 그대로 이용해서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바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마지막 과업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은 자신의 과업을 대적자들의 손을 빌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만 하면 자신들을 위협하던 걸림돌이 사라져 자신들의 앞날이 창창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용하여 자신이 명령한 유대인들의 제사 제도를 완벽하게 따르는 동시에 당시 이 세상을 대표하는 로마 제국의 힘을 이용하여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이 메시지, 즉 세상의 지배자가 올 것이며, 아무런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희생양으로 바쳐지는 그 양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혐의점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회개 제물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대제사장들이 합니다. 그리고 죽으셔서 믿는 자들을 대속해야 합니다.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고 언약의 실행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남아 있는 시간이 홀로 부담하시기에는 너무도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종교지도자들이나 로마 총독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